

데스크



조상운 편집국장

심사숙고

역대 최장 기간으로 기록된 올해 장마가 끝나자마자 무더위가 기승이다. 낮 더위는 활동하는 시간이어서 그나마 견딜만 하다. 그러나 열대야에는 속수무책이다. 냉방기를 통해 더위를 쫓는 것도 한계가 있다. 무더위 때문에 힘들고 지칠때 필요한 시원한 음료다. 청량음료를 불리는 콜라나 사이다를 빼놓을 수 없다. 사이다에 대한 자료를 들춰봤다. 사이다는 한국과 일본에서 레몬과 라임 향이 나는 무색 탄산음료를 일컫는다. 강한 탄산과 낮은 도수의 사과음료같은 사과즙이 일본에 전해지면서 의미가 변해 사이

다가 탄산이 있는 과일맛 음료를 가리키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예전엔 우리나라에서 사이다를 소화제로 사용했다는 사례가 있다. 실제 소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속이 뻥 뚫리는 느낌 탓이어서 사람들은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할 때 사이다를 찾았다. 사이다의 이런 특성으로 요즘 '사이다 발언' 같은 문화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사이다 발언은 듣는 이의 입장에 따라 시원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더 답답하게 할 수도 있다. 더구나 수많은 말(言)로 인한 피해가 적잖은게 현실이다. 잘못된 말로 구설수에 오르거나 하면, 자신의 발언으로 누군가에게는 치명타가 돼 목숨마저 잃게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참으려만 '세 치 혀바닥이 목을 베는 칼'이라는 속담이 있다. 혀는 그 길이가 삼촌(三寸), 즉 세 치(약 10cm)에 지나지 않지만 이 혀를 잘

못 놀려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없지 않다. 혀는 가장 짧으면서 가장 위험한 무기인 셈이다. 말 한 마디로 천 냥 빚을 갚는가 하면, 반대로 힘들게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기도 하는게 바로 혀의 역할이다. 예나 지금이나 세 치 혀로 흥망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글 역시 목숨을 좌우할 만큼 무서운 흉기로 변한지 꽤 됐다. 글이라는 것은 단어와 문장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억양이나 감정을 추가적으로 담을 수 있는 말과 달리 의도하는 바를 전달하는 것이 어렵게 글이기도 하다. 따라서 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그 내용에 대한 정리는 필수다. 그만큼 글을 쓰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못하게 현실이다. 페이스북, 인스타, 유튜브 등 SNS 공간에서 말과 글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무시무시한 언어폭력이 대표적

인 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자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헐뜯고 비난하는 일은 다반사다. 이 시각에도 서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안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념간, 계층간 갈등은 물론 내 것은 맞고 네 것은 틀리다는 이분법적 사고가 상존하는 한 다툼은 영원할 수밖에 없다. 지금도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다툼이 이어지고 있다. 오프라인상에서 격돌한 뒤 또다시 온라인 상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치열하게 격돌하는 양상이다. 이 과정에서 저급한 말과 글이 난무하고 있다. 그렇다고 말을 안할 수도, 글을 안쓸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 처사일까라고 자문하고 싶다. 심사숙고(深思熟考)가 정당일 수 있다. 심사숙고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거나 상황이 급해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급한 경우도 많지만 그래도 다 시험한 깊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설

위기의 저소득 가구, 세밀한 대책 세워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위기로 빠져드는 가구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서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든 탓입니다. 갑자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긴급복지지원 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우려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한 이들의 살림살이는 나아지기 힘들 것입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긴급복지지원 가구는 2018년 1195가구에서 지난해는 2019가구로 파악됐습니다. 1년새 69%(824가구) 늘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긴급복지지원 가구가 증가하면서 지원액도 2018년 8억3541만원에서 2019년 13억1585만원으로 57% 늘었습니다. 이 제도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런 위기에 직면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인해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위기가구가 현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긴급복지지원 가구는 1607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413가구 증가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지원액도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54%(3억9000만원) 가량 증가한 11억25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받는 것은 이들만이 아닙니다. 올해 들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조건부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지역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올해 6개월새 9.8% 늘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같은기간 무려 45.3%나 증가했습니다. 가족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가 쉽게 종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거의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도내 위기가구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위기로 내몰리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취지 무색 안된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이해 당사자의 반발로 당초보다 크게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계획의 일정부분 수정은 예견되지만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확대 지정 취지를 무색케 할 만큼 규모 축소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으로, 지난 2017년 제주도가 환경부에 건의해 본격 추진됐습니다. 제주가 각종 난개발과 과잉관광 등으로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우려속에 제주 환경적 가치 보호정책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기존 한라산국립공원에 중산간 곳자왈 오름 해양 등의 환경자산을 추가해 약 4배 가량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구역내 지역주민과 어업·임업인들이 재산권 침해와 생산활동 제약·규제강화를 우려하는 현실입니다. 도사회협약위원회는 29일 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사

회협약위는 이날 주민들이 반대의견을 보인 우도·주자면 해양지역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외 지역은 공론화 절차로 충분한 의견수렴후 결정토록 해 예상외의 축소 우려를 낮였습니다.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부족과 국립공원 확대 취지 등 사전 설명이 미흡하다는 사실도 적시했습니다. 제주도가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확대지정의 취지 홍보에 적극 나서야 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공론화대로 예상되는 재산권 침해, 생산활동 제약 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제주 환경적 가치들을 오래 보존할 국립공원 확대 취지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도 힘써야 합니다. 제주사회가 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에 심한 갈등을 겪는 상황에 관 심해와 생산활동 제약·규제강화를 우려하는 현실입니다. 도사회협약위원회는 29일 국립공원 확대 지정 관련, 갈등해소를 위한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사

뉴스-in

"공공병원 어려운 길 택했다"

오경생 제주의료원장 포부 시 관계자는 "행락지 주변 음식점과 주류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경미한 개선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강조. 문미숙기자 '독감 예방 접종 확대' 환영 이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은 가을부터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2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 도민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시행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설명. 이 교육감은 "(예방 접종과 관련해) 방역당국과 충실히 연대·협력할 것"이라고 약속. 송은범기자

서 신고없이 트럭 등을 이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하다 단속에 적발. 시 관계자는 "행락지 주변 음식점과 주류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경미한 개선사항은 현장에서 행정지도하고, 중대 위반사항은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강조. 문미숙기자 '독감 예방 접종 확대' 환영 이 교육감은 30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문가들은 가을부터 코로나19와 독감이 함께 유행하는 2차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전 도민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시행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설명. 이 교육감은 "(예방 접종과 관련해) 방역당국과 충실히 연대·협력할 것"이라고 약속. 송은범기자

열린마당

제2회 추경 마중물 삼아 지역경제 활력 견인



좌재봉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총괄팀장

제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주의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우여곡절 끝에 의회 문턱을 넘었다. 예산규모는 2010년 이후 결산연계 추경 규모 가운데 가장 적은 975억원이다. 코로나 19 추경이나 아니냐 하는 논쟁도 뜨거웠다. 재정진단과 지출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기관의 재정운영 부실을 가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지적도 뒤따랐다. 시급성과 효과성을 최우선 고려했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건 불가능해가깝다. 그러기에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있다. 다만 집행기관에서는 꼭 해야 하는

예산, 집행 가능한 예산. 기본에 충실한 예산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재정운영 부실이란 지적은 점차 감소되고 있는 한정된 세입재원에 의한 영향이 크다. 우리도는 지난해 10월 23일 2020년 예산편성과정에서 3000억원의 세수부족을 예상해 "제주도, 가용재원 감소로 재정운영 허리띠 풀라만다"고 이미 밝혔으나 정부의 확장재정정책 기조에 보조를 맞추는 과정에서 법정필수경비를 경제활성화 사업에 재정투자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또 예측하지 못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급격한 세수 감소는 거의 불가항력이었다. 세수 호황기에는 미래의 재정수요를 대비해 과도한 채무를 조기상환(4190억원)한 것은 수범사례였고 모두가 공감한다고 본다. 이번 추경심의과정에서 재정집행을 최하위 오명을 씻기 위해 그리고 일이불은 지역경제 온기를 불어넣기 위한 군불을 지피는 불쏘시개로서 추경예산이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최우선 추진해 나가겠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클
미국식품의약회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제주 통신기반 구축 한라가 책임집니다.
하고 있는 일
▶ 키본·교환기 설치 및 유지보수
▶ 건물구내통신 설비공사
▶ CCTV 및 공청 설비공사
▶ 통신전주건식(가입자부담공사)
▶ 네트워크 설비공사
▶ 전관방송 설비공사
▶ 광케이블 포설 및 접속공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제180008호) / ISO 9001 인증업체
한라전설(주)
대표: 현문찬
제주시 삼도1동 539-1 신산스카이빌 104호
☎ 753-0404 FAX.751-0045

정보통신의 미래 >> 티엔정보기술(주)
고객을 위한 통합 SOLUTION 제공
VOICE & 영상장비 (교환대 & CCTV)
NETWORK 설비 (서버 & Network)
ONE-STOP SYSTEM
비상전원설비(UPS & AVR)
구내통신공사
열린 기술 습득, 기술인력 개발, 고객 중심 사고
티엔정보기술(주)
Telecom & Network information technology
본점 : 제주시 이도1동 1248-43번지
☎(064)722-0992, FAX(064)725-0993

모든품종 감귤(묘) 분양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유라실생, 하례조생, 원터프린스·미니향·레몬, 탐라향 5년생(회분), 궁천변이지, 천천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일남일호
* 신상품 다수보유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